

2011

해외의료봉사 몽골 2차 2011. 9. 3~10

아주 특별한 경험

한국·몽골 양국의 동통·미사봉헌을 위한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찾아낸
8일간의 시간을 즐겁고 의미있게 보냈습니다.



토비나가 코이치로
성마리아병원 리허빌리테이션실 이학요법사

좌 : 토비나가 코이치로, 우 : 고영진 교수

재활치료학과 이학요법사로서 9월 5일부터 3일간은 다르항 제1병원에서, 8일은 제15학교에서 이학요법을 제공하였으며, 한국의 의료봉사단과 미사봉헌, 지역주민과의 교류, 몽골생활을 체험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통·무릎통증·어깨통증 등의 동통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방송으로 안내가 되어, 많은 분들이 내원하였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고영진 교수님이 진찰을 하고, 이학요법을 처방하면 동통경감·가동성의 증대·자가요법의 트레이닝이나 self-treatment의 지도를 하였습니다. 요통·슬통 환자에게는 통증의 원인이나 운동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릿을 작성하고, 몽골어로 번역한 프린트를 배포하였습니다. 3일간 이학요법을 제공한 환자수는 96명이었습니다. 제15번 학교에서도 척추에 변형이 있는 학생이나 요통이 있는 학생 및 교원·스텝에게도 운동·self-treatment에 대한 지도를 28명에게 하였습니다.

몽골에서는 시스템화된 신체측정이 없으며, 양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랐고,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는 비만경향이 있고, 그것이 동통악화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이곳은 운동하는 습관이나 균형 잡힌 식사섭취의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몽골의 풍토나 문화·사회적배경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의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식사나 운동의 습관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는 할 수 없었습니다.

고영진 교수님의 진찰은 매우 공손하고 상세하였으며, 이학요법의 지도도 정확했습니다. 환자가 많아 굉장히 바빴지만 고 교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성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마리아병원의 재활치료 스템에게도 고영진 교수님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재활의료의 시각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지절단(원인은 동상) 환자분께 의수족 보장구를 제공하여 수 차례 일어서고, 부축하며 걷기를 해본 후, 혼자서 걸었을 때, 기쁨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래보면서 한국에서 제작한 의수족 보장구의 가벼움과 세밀한 작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조리봉사자 분들이 만든 식사도 맛있었고, 저녁식사 후 친목도모에 참가하여 단원들과 교류가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의해 고영진 교수님과 설거지나 목욕 등의 생활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몽골·일본의 풍습이나 문화의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느끼면서 8일간의 시간을 즐겁고 의미있게 보냈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했다면 좀 더 의사소통이 원활했을 것이라 느끼며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몽골 파견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몽골 의료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과 파견에 협력해 주신 분들, 유일한 일본인인 저를 친절하게 받아주신 한국분들, 협력해 주신 몽골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